
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자료</h1>		
		배포일시	2021. 11. 8.(월) / 총 4매(본문2, 참고2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	담 당 자	·과장 오원만, 사무관 서지웅, 주무관 최상림 ·☎ (044) 201-3898, 3903	
	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통행료관리팀		·팀장 장한별, 전문분석원 전은수, 전문연구원 조용훈 ·☎ (044) 211-3128, 3296	
보도일시		2021년 11월 9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8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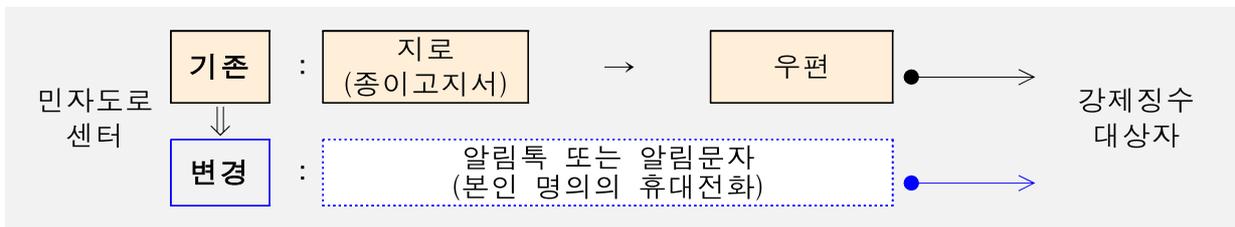
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,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

- 50회 이상 미납자의 전자예금 압류 정례화·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11월 9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(원장 오재학)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(이하 '민자도로센터')와 함께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.
-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공공요금의 하나인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납부 문화 정착을 위해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하여 「유료도로법」 제2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준하여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.
 - 1차 시범사업('19.10.~'20.06.)은 최근 5년 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360건 약 1억 5천만 원, 2차 시범사업('20.12.~'21.06.)은 최근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2,128건 약 5억 2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각각 징수하였다.
- 2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앞으로는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 정례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며, 대상 차량은 약 3,726대, 미납금액은 누적 약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.

-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카카오톡·문자·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되고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으며,
-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,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(www.cephis.re.kr)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(☎044-211-3377)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.

□ 한편,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강제징수 대상자에 대한 미납사실 안내를 기존의 불편한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(알림톡 또는 문자)로 전자고지 받도록 시스템을 개선·구축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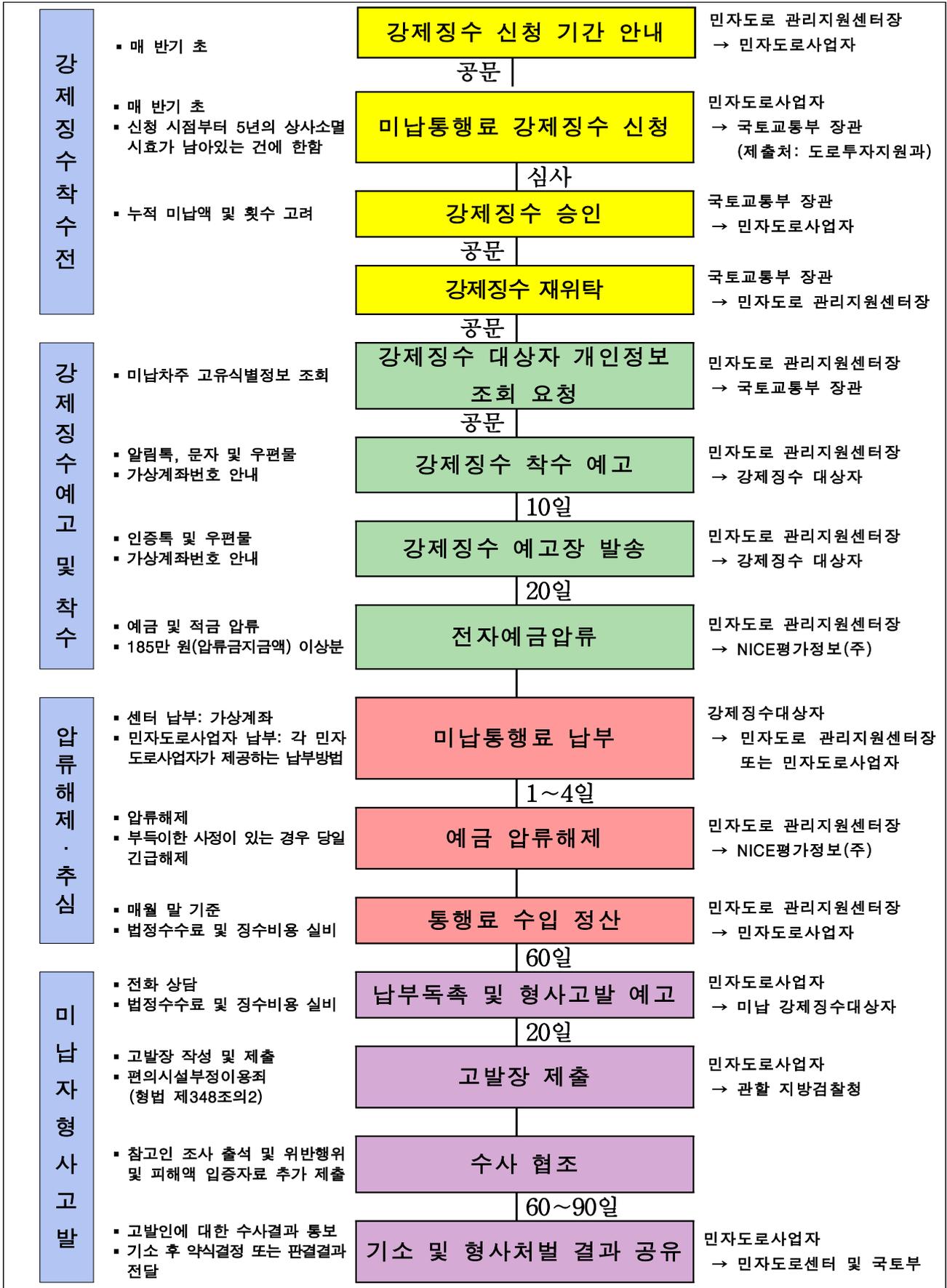
- 이번 11월부터는 강제징수 대상자뿐만 아니라 용인-서울, 수도권 제1순환(일산-퇴계원),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모든 단순미납(법인 및 렌트 차량 제외) 고지에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정식으로 도입되어 이용자 편의가 제고될 예정이며, 향후 전 민자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오원만 도로투자지원과장은 “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,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·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 투자지원과 서지웅 사무관(☎044-201-3898),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통행료관리팀 장한별 팀장(☎044-211-312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

참고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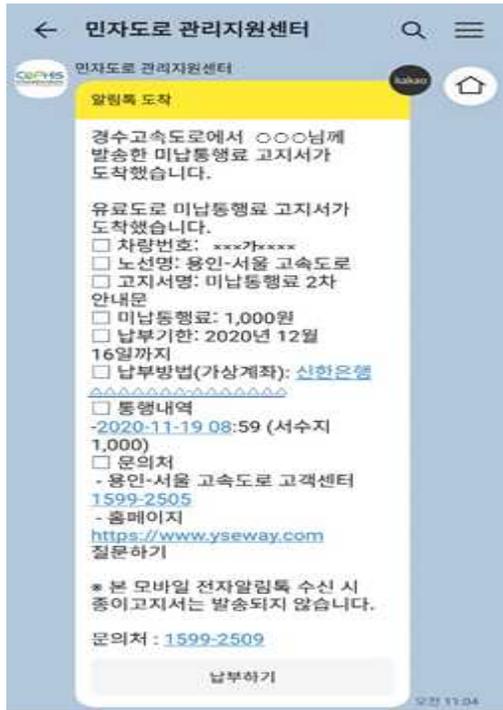
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절차



참고 2

모바일 전자고지 안내 · 납부 흐름

① 알림톡 수신



⊕ 채팅이 불가능한 채널입니다.

② '납부하기' 버튼 클릭



③ 납부처리 화면



④ 납부완료

